

“맛있게 드세요”...고사리손으로 빛은 ‘한가위 情’

북구 양산동 부녀회 9년째 송편 나눔
유치원생들과 빛어 취약계층에 전달
아이부터 어른까지 세대 이어져
30가구 직접 방문 명절인사안부살펴

“우리가 직접 빛은 송편,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추석을 앞둔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양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고은 한복을 차려입은 아이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고사리손으로 초록빛 송편 반죽을 조물조물 빚었다. 아이들 옆에서는 양산동 새마을부녀회원들이 반죽을 조금씩 떼어 송편 모양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다. 서툰 손놀림에 처음에는 동그랄거나 납작했던 송편도 몇 번 손길을 거치자 제법 반달 모양을 갖췄다. <사진>
한쪽에서는 부녀회원들이 아이들이 빛은 송편을 살펴보고 모양을 다듬느라 분주했다. 테이블 위에는 먼저 빚어 썬 송편이 수북하게 쌓



였고, 완성된 송편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포장 용기에 차곡차곡 담겼다. 이날 송편 만들기에는 새마을부녀회원과 선정유치원 원아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양산동 새마을부녀회가 추석에 맞아 마련한 행사로, 지역 취약계층 30세대에 전달할 송편을 직접 만들었다. 아이들도 자신들이 만든 송편이 이웃들에게 전달된다는 말에 작은 손을 더욱 분주히 움직였다.

선정유치원 박도경(7)군은 직접 만든 송편을 바라보며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편을 빚어 본 전지호(7)양도 “송편 만드는 게 조금 어려웠지만 재미있었다”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아이들에게는 송편을 직접 만들어보는 명절 체험이자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의미를 배우는 시간이 됐다. 부녀회원들에게도 매년 이어온 나

눔에 어린이들이 함께하면서 세대를 잇는 자리가 됐다.
양산동 새마을부녀회의 송편 나눔은 올해로 9년째다. 회원들은 명절마다 직접 송편을 만들어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고 있다. 올해도 이른 시간부터 재료를 준비해 아이들과 함께 송편을 빚고 포장까지 직접 맡았다.
정성껏 포장된 송편은 이날 지역 내 취약계층 30세대에 전달됐다. 부녀회원들은 각 가정을 직접 찾아 송편을 건네며 명절 인사와 함께 이웃들의 안부도 살폈다.
김경화(55·여) 양산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싶어 해마다 직접 송편을 빚어 준비하고 있다”며 “서로 어렵더라도 함께 나누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요즘은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이웃끼리 마주할 기회도 줄어드는 것 같다”며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송편을 빚으면서 세대와 세대를 잇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윤찬웅기자

목포문화원, ‘한가위 민속한마당’ 성료

목포역 광장 한국무용·난타 등 풍성
박창식 원장 “고유 전통 문화 계승”

목포문화원이 민족 대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시민이 전통문화로 하나 되는 풍성한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목포문화원은 21일 오후 2시 목포역 광장에서 주민과 문화원 회원, 주요 내빈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한가위 민속한마당’을 개최했다. 목포시와 목포역이 후원한 행사는 고유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동시에 고향을 찾은

방문객들을 환영하고 넉넉한 명절의 정을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목원동 풍물패의 길놀이와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진행된 민속한마당은 개회식과 축하에 이어 다양한 전통문화·대중문화 공연이 펼쳐졌다. 본행사에서는 박정숙 외 4명이 난타 공연으로 연안부두, 소양강치너, 팔도 메들리 등을 선보였으며 박순영 외 1명은 한국무용 사랑무와 춘향과 이도령의 춤을 통해 전통무용의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이어 최수례 외 3명이 새타령과 진도아리랑 등 민요를 들려주며 흥을 돋웠고, 김민영의 색소폰 연주와 이계자·최대환·김준



영·이동하 등의 가요 공연도 이어져 행사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특히 윤미영 외 6명이 참여한 한복 패션쇼는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행사 마지막에는 참석자들이 함께 한가위 떡을 나누며 추석의 정을 나눴다.
목포문화원은 민속한마당을 통해 국악과 전통무용, 민요는 물론, 가요와 색소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며 시민과 귀성객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공간을 마련했다.
박창식 목포문화원장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시민들이 전통문화와 공연을 함께 즐기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며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ACC·관광공사·화순군, 지역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한국관광공사 전남광주지사, 화순군문화관광재단과 최근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ACC의 문화예술 콘텐츠와 화순의 자연·치유·미식 등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역량을 결합해 지역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계기로 세 기관은 ▲ACC·화순 체류형 관광상품 공동 개발·운영 ▲국내외 관광객 유치 위한 공동 홍보마케팅 ▲문화관광 콘텐츠 및 전문 역량 교류 등을 지속 추진하고 협력한다.
첫 협력사업은 ACC와 화순을 잇는 1박2일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운영으로 ACC 공연과 화순의 적벽, 운주사 등 대표 관광자원을 연계해 도시의 문화예술과 지역의 자연·역사를 함께 경험하도록 구성했다.
또 10월에는 한국관광공사 전남광주지사, 하나투어와 함께 호남관광문화주간과 연계한 관광상품 ‘호남 아트&인문학 기행’을 운영한다.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ACC를 찾은 방문객이 광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여행하면서 문화예술의 가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관광자원과 ACC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연결해 함께 성장하는 지역 문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복기자



동강대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 요리대회 잇따라 수상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창의적인 메뉴로 요리 대회 수상과 함께 해외 유명 셰프가 인정한 음식 개발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동강대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학과장 오명진)는 최근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열린 ‘제10회 제주 향토 음식 품평회 및 세계조리사연맹(WACS) 국제 요리 경연 대회’에서 참가자 10명 전원이 수상했다.
동강대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는 라이브 부문에 출전한 김나연(1학년)씨가 고기국수를 선보여 대회 전체 2위를 기록, 제주도의회 의장상을 받았다. 또 박정덕·박철(이상 1학년)씨는 2인조로 팀을 이뤄 나선 전선 부문에서 전체 3위로 (사)조리사협회 중앙회장상을 받았다.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는 라이브 부문에서 7명이 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재웅(1학년)씨가 파스타로 금메달을 차지했고, 이정현(2학년)·소형섭(1학년)씨는 각각 은메달, 유승하·박성빈·김용진(이상 1학년)씨가 각각 동메달을 받았다. 오하은(2학년)씨는 제주 돼지고기 요리로 은메달을 수상했다. /김재정기자

교육청 직원 3명 ‘AI 챔피언 블루’ 인증 획득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백창범·김유선·김동현 주무관이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부문 인공지능(AI) 역량 평가에서 ‘AI 챔피언 블루’ 인증을 획득했다.
‘AI 챔피언’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행정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부문의 인공지능 전환을 이룰 실무형 전문 인재를 발굴·인증하는 제도다.
챔피언 등급은 정책·서비스 기획 역량을 인증하는 ‘그린’, 개발·모델링 기반 실행 역량을 평가하는 심화·고급 단계 ‘블루’, AI 전환과제를 기획·주도하는 거점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는 최상위 ‘블랙’ 등 3개로 운영되고 있다.
인증을 획득한 백창범(전산6급), 김유선(전산8급), 김동현(전산9급) 주무관은 AI 혁신과제 기획·설계, 데이터 분석, 서비스 구현 등 AI



기술을 실제 행정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 역량을 갖춰 ‘블루’ 등급을 획득했다.
전남광주교육청은 인증자들의 AI 활용 경험과 실무 역량을 직원 교육과 우수 사례 공유 등에 활용하고 교육행정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AI 기반 업무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전남광주교육청 국제교육원, 일반직 외국어 교육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국제교육원은 21일 ‘8·9급 일반직 공무원 대상으로 행정 지원 역량을 높이는 2026 일반직 외국어 교육 직무연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연수에는 일선 학교에서 원어면 보조교사 업무를 전담하는 실무진 51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원어면 교사 예산·세금 관리 등 행정 실무, 다문화 사회 정책 이해, 맞춤형 회화 실습 등 18시간 과정으로 꾸려졌다.
참가자들은 단순 예산 집행을 넘어 언어·문화적 장벽을 낮추고 원어면 교사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소통 역량을 학습했다.
조현경 국제교육원장은 “주무관들은 행정 지



원으로 정책을 완성하는 교육 행정의 최전선에 있다”며 “실무자의 탄탄한 소통 역량이 외국어 교육 경쟁력의 밑거름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호남대 건축학부 배지운 교수
국토부 중앙건축위원 위촉



호남대학교 건축학부 배지운 교수가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중앙건축위원회는 건축정책과 제도, 주요 건축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로 배 교수는 건축 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심의와 자문에 참여하게 된다. 위원 임기는 올해 9월부터 2028년 9월까지 2년간이다.
배 교수는 현재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16기 설계심의회분과위원,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 국방시설본부 건설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배지운 교수는 “실무와 교육·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 분야의 전문적인 심의와 정책 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변호사회, 상생카드구입...경제활성화 동참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4천900만원 상당의 광주상생카드를 구매하는 등 지역 내 소비 촉진에 동참하고 나섰다.
21일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 2월 4천900여만원에 이어, 이번에도 4천900만원 상당의 상생카드를 추가 구입하는 등 올해만 약 1억 원에 달하는 광주상생카드 구입을 통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하재욱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남부경찰, 다중이용시설 안심반사경 설치

광주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21일 “최근 남구 다목적체육관과 청소년도서관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현장을 점검하고 화장실 입구에 ‘안심반사경’을 부착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은 안심반사경을 통해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해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 범죄자에게는 감시효과를 통해 범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윤주현 남부서장은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 속 작은 위험요소부터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형우기자



월산면지사협, 취약층 122가구 추어탕 전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월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1일 “최근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 122가구에 추어탕을 만들어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어탕을 받은 한 주민은 “홀로 생활하다 보면 끼니를 챙기기 어렵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효정 월산면장은 “준비한 추어탕이 어려운 이웃들의 식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염양=정승균기자